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및 관련 작업반 회의 결과

목 차

---

I. 출장 개요 1

II. 일정 및 회의 의제 1

III. 주요 회의 결과 3

1. 제27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결과 3
2. 제4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결과 18
3. 제42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결과 25
4. 제31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결과 30

## I. 출장 개요

1. 출장명: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참석 해외출장
2. 출장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46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및 제27차 농촌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Rural Policy) 회의 등 관련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농촌지역 발전 분야에서 OECD 국가들이 논의하는 최근의 정책 이슈와 동향을 파악함.
3. 출장자: 권인혜(농업농촌발전연구부 전문연구원)
4. 출장 지역: 프랑스 파리(OECD 본부)
5. 출장 기간: 2022. 5. 7(토) ~ 5. 14(토) (6박 8일)

## II. 일정 및 회의 의제

일시	주요 일정 및 의제	
5.7(토)	○ 출국: 한국(인천) → 프랑스(파리)	
5.8(일)	○ 회의 준비	
5.9(월)	제42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닝 세션</li> <li>○ 지역의 경제적 회복 평가</li> <li>○ 한눈에 보는 2022 지역과 도시</li> <li>○ 외국인 직접투자 및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평가: 지역 세계화의 향상된 평가방법을 위하여</li> <li>○ 지역과 기후변화</li> </ul>
5.10(화)	제27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닝 세션</li> <li>○ 농촌정책의 현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제 13차 농촌 컨퍼런스 업데이트</li> <li>○ (스웨덴)고틀랜드 지역 리뷰</li> <li>○ 콜롬비아의 농촌정책 리뷰</li> <li>○ WHO와 농촌영향평가(Rural Proofing)</li> </ul>

일시	주요 일정 및 의제	
5.11(수)	제31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닝 세션</li> <li>○ 도시와 도시정책에 미치는 국제적 충격의 영향</li> <li>○ 도시의 미래 만들기: 제11차 세계도시포럼으로 가는 길</li> <li>○ 도시의 기후회복력 높이기</li> <li>○ 기타 도시 프로젝트 업데이트</li> </ul>
5.12(목)	제46차 지역개발정책위 원회 회의(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닝 세션</li> <li>○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취약한 회복 관리하기 및 보도 회복력있는 미래 만들기</li> <li>○ RDPC 2023-24년 사업계획</li> </ul>
5.13(금)	제46차 지역개발정책위 원회 회의(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지역 전망</li> <li>○ OECD 역내외 국가들의 지역 거버넌스 개혁</li> <li>○ 원격근무 및 공간적 불평등</li> <li>○ 지역과 도시에서의 기후 재원 확보하기</li> </ul>
5.13(금) ~5.14(토)	○ 입국: 프랑스(파리) → 한국(인천)	

### III. 주요 회의 결과

#### 1. 제27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 결과

##### □ 회의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 농촌정책의 현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 토론 및 논평
- 제13차 농촌 컨퍼런스에 대한 업데이트 : 정보 제공 및 논평
- 스웨덴 고틀랜드 지역 리뷰 : 토론 및 승인
- 콜롬비아의 농촌정책 리뷰 : 정보 제공 및 토론
- WHO와 루럴프루핑(Rural Proofing) : 정보 제공 및 토론

##### □ 회의 결과

###### 가. 오프닝 세션: 승인

- 농촌정책작업반 의장(Chair of WPRUR: Mr. Peter Wostner)이 개회 및 기조 발언함
- 제27차 농촌정책작업반 회의의 아젠다에 대해 대표단의 동의를 얻어 승인함
  - 제27차 회의의 아젠다가 시간적 제약(오프라인-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른 시차 고려)으로 인해 논의 필요성이 있는 의제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다음 회차 회의에서는 보다 다양한 의제를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함.
- 제26차 회의(2021.11.17.)의 요약기록(summary record)에 대해 대표단의 동의를 얻어 승인함.

## 나. 의제별 세부 논의 결과

### 1) 우크라이나 전쟁, COVID 회복의 현재 맥락에서 농촌정책의 상황: 토론 및 논평

#### ① 주요 발표 내용(의장 및 사무국)

- COVID-19 사태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식량안보,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등과 같이 몇 가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도록 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농촌이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각국 대표단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하여 지금이 바로 더 나은 정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이는 과업·예산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and Budget: PWB)을 통해 결정되는데, 농촌이 PWB에서 이전보다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히고 싶음. 새로운 기술과 같은 가능성들이 중간도시나 타운과 같이 더 강화된 역할을 하는 미래의 농촌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있고, 그와 같은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경제적 영향은 그 이전의 OECD 국가들 전망에 비해 세계 경제성장은 올해 1%p 이상, 유럽의 경우 1.4%p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OECD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건한 지역 부문과 관련하여 RDPC와 산하 작업반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각국 대표단에서 이들 주제와 관련하여 제안이나 의견을 공유해주기를 요청함.
- 또한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OECD 지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인데, 원자재, 비료, 에너지 및 운송비용 상승, 식량 가격 상승 등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에 특정한 영향이 작용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 에너지 원천을 다각화하기 위한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함.

- OECD에서 상당히 단기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스페인, 체코, 포르투갈을 대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각기 다른 지역 유형별로 가구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에너지 빈곤 개념(에너지 비용에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사용)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i)비대도시지역이 대도시지역보다 더 취약하고, 그 중에서도 대도시 인근의 소도시들이 원격지보다 더 큰 영향을 받으며, (ii)비대도시지역이 에너지 빈곤이 될 확률이 대도시지역에 비해 약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농촌에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 일부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각국의 상황과 농촌지역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에 대해 공유해주시기를 요청함.

## ②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A국가)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패키지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에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부흥 정책 등을 시행 중이며, 약 100만 유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산업 회복 및 지역 생산품의 글로벌 공급망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 식품 배달과 같은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미래의 작은 마을들(Small Towns of Tomorrow)'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음.

### (B국가)

- 우크라이나는 주요한 식량 공급 국가이기에 식량 가격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는 현 상황에서 식량안보는 농촌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식량은 토지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농촌작업반이 토지이용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회복력과 환경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됨.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농촌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농촌지역에는 수자원,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자연자원들이 있어 재생에너지를 위한 높은 잠재력이 있음.
- 한편 코로나19 사태는 텔레워킹과 같은 도시-농촌 연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촉

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하는 것이 사무국의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함.

(C국가)

- 도시지역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소규모 주거단지로서 거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농촌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음. 이를 위해 농촌지역의 농업 및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음. 난민과 이주민들은 주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임. 농촌지역은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매우 중요함.

(D국가)

- D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D국가에는 이미 약 3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거주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위한 주택과 학교는 매우 부족함. 난민들은 도시지역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들은 주거, 건강, 사회통합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농촌지역의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농업인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 중임.

(E국가)

- E국가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로부터 멀리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촌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등 농촌지역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농촌재생 프로젝트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의 조기집행, 세금 납부기한 연장, 소비 촉진을 위한 국가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F국가)

- 현재 높은 에너지 비용이 농촌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음. 농촌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개인 차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F국가 정

부는 연료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로 한시적 세금 경감, 차량 소유주에 대한 특별 재정기여(financial contribution)-농촌지역 소유주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재정기여-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비료, 가축사료 등 확보를 위해 에너지가격 상승 부담이 큰 농업부문에 대해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특별 패키지도 마련하고 있음.

#### (G국가)

- 현 상황에서 G국가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비료 가격임. 가이드라인 제시,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각종 조치들, 농업인에 대한 편당과 유기물 기반의 비료 제조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편당 등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 패키지를 시도하고 있음.
- G국가에서 또 다른 중요 이슈는 휘발유 가격으로, G국가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낮추는 조치를 취함. 이 사안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주제로, 장기적 대응은 전기차량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동거리가 더 긴 농촌지역에 필요한 인프라구조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과제가 제기됨. G국가는 커뮤니티 인프라구조의 일부에 전기차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작은 계획들(smaller schemes)을 검토하고 있음.

#### (H국가)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개인/가구, 그리고 팬데믹과 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체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함. 특히 경제활동 주체 지원을 위해 단기 근로지원(short time work benefits)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소규모사업체와 자영업에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수단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연장될 예정임. 경제안정화기금(economic stabilization fund)을 통해 기업에 자본기반 강화, 현금유동성 부족 극복을 위한 안정화 수단을 제공하는 지원책도 시행하고 있음.

#### (I국가)

- I국가는 팬데믹과 토네이도, 우크라이나 난민 웨이브 등 매우 어려운 상황들

을 맞고 있음. 난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을 협상하고 유럽연합으로부터 가용한 수단들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한 한편 매우 지역적인(local) 측면도 작동하는데, 체코의 경우 난민 대부분이 관광기반이 위치한 농촌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지역에서 난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매칭하고 있음. 학교, 일자리 등과 같은 시설들도 매칭이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장기주택으로 사용될 건물 복원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작은 지방정부(행정)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나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들, 농촌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의 지역 네트워크가 큰 부담을 지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와 토네이도라는 재난을 거치면서 안정적이고 견고한 지역네트워크가 국가적 인센티브 없이도 그러한 상황들에 대응할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점에서 지역에서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실행그룹(local action groups)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

## (J국가)

- J국가는 특히 식량 생산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식량안보 이슈가 매우 중요한 만큼 농촌경제에서 중요한 이 두 가지 주제가 이후의 컨퍼런스에서도 다루어지면 좋겠음.

## 2) 제13차 농촌 컨퍼런스\*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 제공

-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제13차 OECD 농촌발전 컨퍼런스의 주제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번영하는 농촌의 장소들”이며, 2022년 9월 28-30일 아일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임. 사무국은 대표단에 준비 프로세스, 참여와 관련하여 공지하고, 아일랜드 측도 동 컨퍼런스 개최에 대해 부연하고 초청함.
  - 가국은 가국 농촌발전과 관련하여 비전과 기회에 초점을 두고 프레임을 재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컨퍼런스가 그간의 농촌발전 관련 교훈을 고찰하고 대표단 회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함.
- 컨퍼런스에서 다룰 주요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팬데믹으로부터의 교훈, 경제·환경·사회 부문들, 젊은층과 젠더 등이며,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트위터 등 다양한 미디어 코너가 운영될 예정임.

- 경제·환경·사회 부문의 컨퍼런스 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 (i)회복을 넘어: 농촌 커뮤니티를 위한 원격업무와 기회들, (ii)농촌 발전을 다시 생각한다: 상향식 농촌경제·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효과적 해결 방안, (iii)젠더 격차 완화: 농촌경제에서 여성을 위한 기회 창출과 제약 제거
  - 환경: (i)농촌지역에서 기후 및 순환 바이오경제 기회를 활용한 기후행동 (Climate Action)을 위한 농촌 아젠다, (ii)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커뮤니티를 위한 지역의 전략: 탄소배출집약적 활동에서 친환경 탄소중립(Net-zero) 대안으로의 전환, (iii)해안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농촌지역의 청색경제(blue economy)
  - 사회: (i)농촌지역에서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끌어모으고, 머무르게 하는 전략들, (ii)타운중심지 재활성화: 사람들이 일하고 살고 싶은 장소 만들기, (iii)농촌지역의 교육과 기술훈련을 위한 혁신적 방안들
- 대표단 각 국가에서는 발표자, 좌장(moderator) 등 역할로서 참여의향을 전달하거나 적절한 참여자를 사무국에 추천해 주기를 요청함(컨퍼런스 참여자 구성을 하계휴가 시기 전에 진행할 예정).

### 3) WHO와 농촌영향평가: 정보 제공 및 토론

#### ① 주요 발표 내용

(사무국)

- 사무국은 WHO가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인 루럴프루핑(rural proofing)을 주제로 한 OECD-WHO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함. 이번에 OECD가 WHO와 협력하는 본 프로젝트는 루럴프루핑을 건강(의료)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시도임.
- 루럴프루핑 또는 지역프루핑(territory proofing)은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프로그램·이니셔티브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는 체계적 과정을 통해 농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예방적 수단임.
- 국가에 따라 루럴프루핑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임.

- 국가재정 자원이 농촌지역에 도달하도록 보장, 농촌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전달,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 부정적 영향의 완화, 농촌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기구(agency) 지원, 특히 도시 아젠다가 농촌을 지배해버리는 지역의 경우 농촌이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 등으로 다양함.
- OECD는 관련 전문가 및 루럴프루핑을 시도한 국가들과의 논의를 기 진행했고,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로 루럴프루핑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과의 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임.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스토니아, 스페인, 독일, 칠레, 미국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며 그 외 동 주제에 관심 있는 국가들도 참여 가능함.
  - \* 6월 9일, 15시-17시(파리 현지시간), 줌 계정 마련 예정
  - ※ 9월 아일랜드 컨퍼런스에서도 라운드테이블 토론(“농촌지역 건강 맥락에서의 루럴프루핑”, 9.28.)을 개최할 예정임

(세계보건기구(WHO)<sup>1)</sup>)

- WHO는 농촌지역의 의료 불평등과 관련하여 국가의료정책·전략·계획·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루럴프루핑에 대해 발표함. 비전염성 질병과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농촌은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훨씬 더 큰 제약을 경험하고, '17년 기준 식수(10 중 8명)나 기초적 위생서비스(10명\ 중 7명)가 결여된 여건에 거주하는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해결 가능한 불공정한 농촌 격차가 존재함.
- 농촌지역의 의료 불평등은 불충분한 의료시스템, 그리고 농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회적·환경적 영향요인들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i)농촌의 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ii)영향요인과 관련한 각 부문에 대한 접근 등 두 가지 트랙을 고려한 접근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i)농촌 의료시스템 강화: 의료 재정 지원, 정보 시스템, 의료 거버넌스, 인적자원, 서비스 전달 등
  - (ii)영향요인 관련 각 부문에 대한 접근: 고용·교육·사회적 보호·토지 등, 인프라구조·전기·ICT 등, 젠더 평등, 비차별(소수민족, 이민자 지위 등), 다

1) Theadora Swift Koller, 선임기술어드바이저, Health Equity, Director General's Office, World Health Organisation/Headquarter

부문이 관여하는 강력한 농촌발전계획과 정보시스템, 부문별 정책·예산에 대한 루럴프루핑 등

- 의료환경 루럴프루핑의 사회적·환경적 결정요인이란 다부문에 관계되는 것으로 전환하는 농촌정책 수립에서의 루럴프루핑을 의미함. 가령, 거버넌스, 경제, 사회통합, 환경 등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들은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며 영향을 미침.
  - 거버넌스 부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규제, 시민보호 서비스, 법·행정 서비스 등
  - 경제 부문: 교육 및 평생교육 서비스, 고용 관련 서비스, 금융 서비스, 교통·도로 서비스, ICT 서비스, 통신 등
  - 사회통합 부문: 의료서비스 및 사회적 보호 서비스, 응급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반차별 제정 시행과 사회통합 관련 서비스 등
  - 환경 부문: 위생 및 폐기물 관리서비스, 환경보호, 에너지서비스, 수자원 서비스 등

## ②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의장)

- WHO가 발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와 접근, 사례야말로 농촌작업반에서 관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쟁점들이라고 생각함.
- 첨언하자면, 주로 도시-농촌을 언급했는데 농촌이 연속체(continuum)로서 그 안에서도 서로 상당히 다른 상황을 가진 농촌이 존재함. 정책적 관점에서 어떻게 농촌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 역시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 시간 제약으로 질문과 토론은 생략하겠지만, 본 주제는 9월에 개최될 농촌발전 컨퍼런스에서도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표단에서는 사무국에 의사를 전달해주기를 요청함.

#### 4) 섬 경제에서 지역발전 경영 - 고틀랜드 지역 리뷰: 토론 및 승인

##### ① 주요 발표 내용(사무국)

- 섬 지역으로서 고틀랜드의 독특성에 주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제안들을 제공하고자 지역 리뷰의 주요 결과와 정책제안들을 발표함.
- 고틀랜드는 발트해의 가장 큰 섬이자 스웨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약 6만 명)으로, 지역경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스웨덴 GDP의 0.43%) 상대적으로 다각화된 경제지리를 가지고 있음. 고틀랜드는 유사 조건을 가진 비교지역들에 비해서는 경제 성과가 높지만 스웨덴 평균에 비해서는 여전히 1인당 GDP, 노동생산성 등에서 큰 격차를 보임.
- 고틀랜드는 인프라구조, 비즈니스 환경과 혁신, 다층적 거버넌스와 국가하위 단위(subnational) 재정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유리점들을 가지고 있음.
  - 인프라구조: 페리와 항공 연결, 대형 크루즈선을 위한 확장된 항구, 높은 고속데이터통신망 보급률(가구의 88%), 발전된 재생에너지 시스템 등
  - 비즈니스 환경과 혁신: 상대적으로 다각화된 경제, 연구·교육기능을 갖춘 대학, 인큐베이터, 높은 수준의 스타트업, 강력한 지역정체성 등, 행동가적 사고방식 등
  - 다층적 거버넌스와 국가하위단위 재정: 정책과 행정에 대한 높은 책무성, 재정적 유연성 등
- 리뷰의 결과로 향후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경제·사회·환경적 과제와 기회를 검토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함.
  - (i)에너지 공급, 물 관리, 주택 및 디지털 인프라구조에 초점을 둔 인프라 구조 투자와 계획(개선과 확장)
  - (ii)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 확대
  - (iii)고틀랜드 전 지역에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제한된 공공 자원의 효과적 이용 등 행정 역량의 향상,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능력 향상, 다층적 거버넌스의 조정·협업 강화

## ②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a국)

- a국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 지역은 인구 정체와 고령화를 겪던 지역이었으나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접근법을 도입함. 이민자 증대책에 집중하여 지난 7-10년간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경제 다각화가 이루어짐.
- 그러나 그에 따른 영향도 있어 인프라구조 기반, 의료, 교육, 특히 주택과 관련한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전체적, 산업 전체적 접근이 요구됨.
- '성장(growth)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성장이 긍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노동시장의 노동력 문제 등 그에 따른 과제도 마주하게 됨.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해가면서 상향조정(upscaling)과 재조정(rescaling)을 어떻게 바라볼지의 고민이 필요함.
- 현재 목격하고 있는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공급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 여러 층위의 정부에 걸친 정책 이행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 (b국)

- 고틀랜드 지역 리뷰로부터의 교훈을 b국 정부의 섬 부서에서도 참고할 수 있었고 양 지역 간 비교해보는 여러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 b국은 우리의 섬 정책과 섬 지역을 고려한 법 제정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고틀랜드 지역 리뷰를 통해 b국의 정책 사례와 관련 이슈의 실천 사례들, 특별히 2018년 스코틀랜드의 관련법에 도입한 아일랜드 프루핑(island proofing) 정책 등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 기쁘고 유용한 논의였다고 생각함.

### (c국)

- 섬 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비용과 혜택이 무엇인가를 객관적 근거를 통해 평가해보고자 한 것이 본 리뷰의 목적이었음. 본 리뷰는 OECD에

서 공식적으로 수행한 첫 번째 섬 지역 연구로서 섬 경제에 대한 중요한 평가이며, 정책으로 이행될 시 지역 협력을 통해 고틀랜드에 영향을 미치고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고, 다른 섬 지역들에 대해서도 유효한 정책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함.

- 리뷰에서는 지역시장의 규모, 이동 비용, 에너지 안보, 주택 공급 등 섬 지역의 도전과제들을 제기한 반면,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 완화와 같은 포용적 성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 역시도 제기하고 있음.
- 고틀랜드를 포함한 섬 지역은 대부분 관광과 농업이라는 두 기반에 의존하는데, 지역경제를 더 안정화시키기 위한 세 번째 기반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탐색이 필요하며, 본토 및 본토 경제와의 거리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방안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함.
- 본 리뷰를 통해 중앙정부 그리고 EU 차원에서 새로운 강화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함. 고틀랜드 지역 리뷰의 의미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가령 미래의 EU 결속정책(cohesion policy)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섬 지역 입장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음. 고틀랜드 지역 리뷰를 시작으로 다른 섬 지역들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이어지고 개별 섬으로서가 아니라 섬 지역들 간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함.

(사무국)

- 리뷰에서 검토된 사항들이 더욱 확대되어 다뤄지기를 희망함. 회원국의 다른 논평이 없으므로 리뷰 보고서를 승인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해가도록 하겠음.

## 5) 콜롬비아 농촌정책 리뷰: 정보 제공 및 토론

### ① 주요 발표 내용(사무국)

- 콜롬비아 농촌정책 리뷰의 목표는 콜롬비아 농촌발전의 핵심 과제들과 기회들을 검토하고, 콜롬비아 농촌지역에서 안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안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으로, 리뷰의 잠정적 결과와 정책제안들에 대해 발표함.

- 콜롬비아 농촌지역은 민족적 다양성, 생물 다양성, 풍부한 자원, 농업 잠재력, 경제활동의 부상 등과 같은 강점을 가지며 안녕을 위한 가능성을 가지는 원천이 될 수 있음.
-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노동(labor informality), 제한되고 낮은 질의 인 프라구조, 정보 부족(가용 토지 등), 고속데이터통신망(농촌 가구의 28.8%),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교육, 의료), 제도 신뢰와 보안(불법행위) 등 극복해야 할 구조적 문제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부문에 관계되는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론적(holistic) 농촌정책이 요구됨.
- 농촌의 가능성을 실현하고 콜롬비아 국민의 안녕을 높이기 위한 행동의 프레임워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i)사람들의 안녕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체론적 국가농촌정책을 발전, (ii) 농촌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권한부여 요인들에 집중하여 우선순위로 추진, (iii)농촌정책 설계와 이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만드는 것임.
- 리뷰의 분석과 정책제안은 (i)농촌커뮤니티에서 양질의 교육과 건강에 대한 접근성 뿐 아니라 이동/수송과 디지털 연결성을 제고하는 것, (ii)소수민족과 환경 이슈에 초점을 두고 농촌의 토지이용관리 및 토지 공식화(land formalisation) 향상, (iii)포용적이고 장소에 기반한 정책 이행을 위한 강력한 다층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가진 전체론적 농촌정책의 개발을 지원 등의 전략적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본 보고서는 5월 18일 콜롬비아 정부와 예비 발표, 6월/8월 신임정부 토론 및 2022-2026 국가발전계획 위원회 간 검토를 통해 10월에 최종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임.

## ② 회원국 주요 토론 내용

### (가국)

- 본 리뷰의 결과는 가국에서 수행했던 리뷰 결과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콜롬비아에서 농촌발전을 위한 좋은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으로 생각함.
- 가국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을 공유하고

자 함. 첫째, 가국은 범부처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를 통해 농촌발전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부처들과 논의하면서 다양한 실행정책들 간 조정하는 것이 유용했음. 둘째, 시민사회, 민간 및 공공의 주체들과 더불어 설립된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가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나국)

- 양 국가 간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사한 정책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됨. 범정부에 대한 초점은 리뷰에서도 분명하게 다루는 특징으로 아일랜드에서 잘 작동하고 있음. 아일랜드는 전반적 조정기구를 중심으로 2017년 농촌발전및농촌커뮤니티발전부를 설립하고 정책 프로파일과 여러 정부에 걸친 이행의 조정을 강화했는데, 이것이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해왔음.
- 또한 커뮤니티들, 지역 주체들로부터의 참여적 접근은 주요 정책이 그 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음.

(다국)

- 본 리뷰는 다국적 맥락에서 다국의 농촌정책에 대해 검토받고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경험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다국은 올해 5-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본 OECD 농촌정책 리뷰는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의 전략적 틀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지원하고 2022-2026년 국가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근본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함.

(라국)

- 라국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 가지 정책수단을 시행함. 첫째로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하여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로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하며, 셋째로 지역의료기관으로 의사를 파견하여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있음.

(미국)

- 원주민 삶 계획(indigenous lives planning)과 관련해서 콜롬비아에서 협업할 의향이 있는지 초청하고자 함. 미국 농촌지역에 그러한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서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함.

(미국)

- 국가 농촌정책을 위한 범부처 조정기구를 창설하는 정책제안에 대해 반갑게 생각함. 미국은 이러한 제도와 관련하여 좋은 정책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구조는 전반적인 정책 행동에 있어 공동의 논의와 이해, 통합적 접근을 높일 수 있음.
- 국가-광역-지역 레벨 간의 조정, 그리고 공공섹터-민간섹터-시민사회 주체들과의 조정이 농촌발전 공동 작업을 위해 중요하며, 지역의 자산과 강점, 기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상향식 발전 접근과 장소기반 접근이 농촌발전을 위한 핵심이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음.

## 2. 제4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결과

### □ 회의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RDPC회의 1일차)

- 지난해 제45차 RDPC 회의 요약 및 관련 아젠다 승인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의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논의
- 지역경제 회복 방안

### □ 회의 결과

####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OECD와 RDPC의 지원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내 세계2차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피난민이 발생했으며 유럽 국가는 전체 인구의 1/4이상의 난민이 유입되는 상황
- OECD는 세계 경제가 1.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측하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불안정하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RDPC는 어떻게 OECD와 RDPC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전쟁으로 인한 영향인 난민 도움, 에너지 확보 등을 할 것인가 논의 필요
- (A)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EU와 OECD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OECD와 유럽과의 협업이 중요. 지역의 회복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갖는 재량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
- (B) B는 OECD RDPC의 결정을 존중하며 B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인과 OECD 간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함. B는 OECD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실행할 것이며 이미 폴란드는 OECD, 우크라이나와 함께 스마트 시티에 대한 협의 중.
- (C)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로 인해 C는 전례 없는 쇼크를 받은 상태임에도 수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교육, 고용, 장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준비 중

- (D) D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로 국경을 넘은 수많은 난민들을 지원, 의료, 공공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크라이나인을 지원하는 중.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재건할 수 있도록 원자재 등도 지원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시민사회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섬. OECD는 전문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에 민주주의가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OECD의 지원이 필요.
- (E)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여기서 E의 역할은 분명. 인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난민수용, 아동 지원,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 바이든은 13.5 빌리언 예산을 배정하고 제공, 최근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미국에 망명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지원책이 포함. 지난 화요일에는 40 빌리언 달러를 다시 배정해서 직업교육, 지역사회 교육 등을 지원,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에 있으며 모든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2) 우크라이나 전쟁이 OECD 가입국에 미친 영향

- 5.8백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하면서 인근 유럽 국가로 유입하여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중장기 전력이 필요. RDPC는 이주 난민을 돕기 위해 공간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됨
- 농촌 지역은 에너지 빈곤에 더 취약하고 러시아에 의존하는 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름
- (a) a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입장에 있으며 이 위기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소득의 감소, 인플레이션 증가 등이 발생. 이렇다 보니 정부의 지원에 대한 압박이 큰 상태이고, 아침이나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동 난민이 많아서 이에 대한 지원으로 푸드뱅크 지원. 두 번째 어려움으로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빈곤이 증가, a도 영향을 받음. 러시아에 의존도가 크지 않더라도 영국은 특히 북부 잉글랜드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일 등의 영향, 세 번째 영향으로는 공급 체인에 영향을 미침, 소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에 가중
- (b) b는 각 지역이 받은 영향이 큼. 데이터를 맵핑해서 보면 b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로서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 다른 국가와 유사한 영향을 받음. 가격 방어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파산의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

에 각기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며, 에너지, 음식 재료 등 주요한 자원의 공급이 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오일 공급 체인에 대한 새로운 유통망의 확보 혹은 탄소중립의 빠른 전환 등으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프랑스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 사회 보안의 강화 또한 필요. 프랑스는 정부와 지방정부, 공적 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c) c의 주요 에너지원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로 전체 에너지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해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현재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가스 절대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지난 10년간 가스 파이프 라인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중. c 가스를 EU와 연결하고자 노력 중
- (d) 가스, 오일의 인플레이션, 고용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은 지역 개발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3) 2023-2024 예산 논의

- RDPC의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인 PWB(Programme of Work and Budget)의 2023-24에 대한 논의, RDPC의 예산은 펀딩과 기여금으로 전체 예산의 25%(part1)를 차지하고, 이 자원은 특별주제에 대한 연구로 활용 중
- 업무의 품질과 영향력 증진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 예정: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간행물, 보고서 요약 등), 2024년 각료급 RDPC 회의 조직을 통해 고위급 참여 촉진, 지방정부 협회와 민간, 금융, 사회적 파트너, 시민 등과 파트너십 구축 및 확대, 비회원 국가와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 논의 및 공유, 글로벌 아젠다 공유를 위해 세계적 회의 등에 참석, 지역과 도시의 문제에 대해 다른 OECD 위원회와 협력 등
- (1)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는 지역 간 비교를 같은 레벨에서 하나의 도구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사업 간에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 다차원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각기 다른 레벨에 다른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게 중

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미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도시정책작업반의장)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도시 정책과 주변 환경과의 맥락이 복잡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중요한 순서로 이런 변화를 추적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촌정책작업반의장) 농촌 작업이 우선 실행이 필요한 작업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 동의하며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질문으로는 우리가 질적 변화에 대한 것을 추적해야 하는 것인지와 왜 OECD가 농촌 지역 작업을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언급이 필요
- (2) 정책결정자가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논리적 과정이 중요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
- (RDPC 의장) 정책도구, 프레임워크, 플랫폼 구축 등에 노력할 것이며 RDPC 간의 소통에 노력할 것.

## □ 회의 안전 및 주요 논의 사항 (RDPC회의 2일차)

-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논의
- OECD 가입국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 논의
- 지역과 도시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 강화 방안
- 도시와 농촌작업반 논의 공유

## □ 회의 결과

### 1) 도시와 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논의

- 2023년 공개 예정인 보고서의 작업 과정을 공유하며 해당 보고서를 위해 진행한 온라인 설문과 지역 내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수렴과정을 공유하고 지역 관망을 위한 국가별 프로필을 구축
- 지역 내 불균형에 대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미래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야 하는지,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의 내용 공유

- 1장에서는 OECD 가입국 중 지역 내 불균형을 경험한 국가들의 경험을 정리(지역 내 불균형의 경향, 최근 영향), 2장에서는 OECD 지역이 지향하는 방향 설정(OECD의 미래, 회복가능성 확보), 3장에서는 국가별 지역 내 불균형의 변화와 지역의 프로필 정리
- (ㄱ) 보고서의 구조는 굉장히 좋고, 무역이 지역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초기단계에서 영국은 무역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역과 성장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용 창출과 같은 효과에 대한 언급이 필요
- (ㄴ) 보고서 초안의 아웃라인은 좋고, 최근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을 지역이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는 필요. 기후변화 또한 광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등이 다뤄지길 바람
- (ㄷ)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생각하면 기후 전환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변화의 속도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경우 2050을 고려

## 2) OECD 가입국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 논의

- “OECD 가입국과 그 외 국가의 지역 거버넌스 개편(Regional Governance Reforms in OECD Countries and Beyond)” 보고서의 초안을 공유하고 지역 거버넌스의 개편을 제도적, 지역적, 공공 관리적 관점에서 국가와 연방제 국가 관점에서 검토
- 보고서의 목적은 지역 정부의 역할 증대와 개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별 영향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정부의 경향과 지역 정부의 의사결정 요인, 국가 내 주요 지역 정부 간 비교, 지역 정부의 역할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지역의 정의) 지리적 특성, 경제적 기능, 통계 단위 지역, 계획 단위 지역 등 지역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지역’은 국가의 중앙정부 아래 단계의 정부 주체를 의미
- 지역 정부를 개편하는 세 가지 요인으로는 문화, 역사적 특징, 다층적 거버넌스의 효율성 강화, 경쟁력과 웰빙 강화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정부의 유형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동태적 과정을 가진다는 점, 각 유형은 고유한 특징과 장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존재

- 네 가지 유형의 지역정부 유형: 계획 혹은 통계 단위 지역, 협력 지역, 탈중심화 지역정부, 입법권한을 갖는 지역 정부로 구분 가능

### 3) 원격근무와 공간적 균형

- 팬데믹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원격근무가 급속히 확산되었고(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 이로 인해 새로운 공간 개념이 등장하여 모든 규모의 도시, 특히 중간도시와 같은 도시에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이후 도시의 확산과 인구 이동을 고려한 6개의 시나리오를 도출: 도시에 유입(기존), 농촌 지역으로 인구이동, 도시중심의 재생 및 성장, 도넛 효과, 도넛효과의 확장, 중간도시의 등장 및 성장
- 도시로 유입이 감소하고 유출은 증가(런던, 도쿄, 파리, 토론토, 몬트리올), 다양한 지역화로 한 곳의 주거지가 아닌 다양한 주거지를 가지는 현상 발생하는 등 선택적 재편 현상 목격
- 파일럿 연구로서 미국 우편번호의 이동을 추적한 결과, 농촌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미국 대도시의 주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캐나다의 순이동 또한 도시 중심으로부터 유출되는 현상이 2019년 이후 계속 발견되고 있고, 원격근무가 농촌 지역의 인구성장에 기여한 점이 발견
- 팬데믹 동안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도시중심의 매력은 감소했으며, 원격근무는 대면 미팅을 덜 중요하게 인식을 전환하는 데 기여
- 도심 탈출과 영향을 생각하면 도시중심에 주거하는 것의 이점이 감소하고 점차 도심을 벗어나는 경향이 강력하게 등장하며 주변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의 이점으로는 인터넷의 품질 개선, 녹지공간의 증가, 인구밀도의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낮은 주거비용 등이 존재
- 모든 사이즈의 도시와 농촌 지역은 원격근무로 발생하는 이점을 빠르게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몇몇 국가는 원격근무 정책을 발표했고, 몇몇 주요 중간도시와 소규모 도시는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개발
- 인터넷 연결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품질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필수여건
- 이 변화는 일시적인 것과 완전한 변화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런 변화가 서비스의 질 변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논의

- (도시작업반 반장) 이 주제는 도시의 개발과 관련이 크며 향후 도시간 위계 재편과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스) 스은 수도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원격근무로 인해 기회의 범위가 넓어졌고, 이로 인해 주변 도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됨

#### 4) 지역과 도시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금융 강화 방안

-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국가들이 주거 개발, 토지이용계획, 교통, 유출수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고안하는 중
- 해당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과 재무적 선택을 통해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OECD-EC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기후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소개
- 2019년 승인된 OECD-EC 프로젝트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결합한 관점으로 기후 비용과 기후 이익(거시)을 통합하여 미시적 관점에서 그린 예산을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
- OECD는 subnational government climate finance hub를 구축해서 관련 내용을 공유
- (가) 새로운 형태의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 정책과 관련된 계약을 지역 단위에도 적용하여 환경가치를 고려해서 경제 개발과 사회적 개발을 고려한 환경 전환을 고려. 이런 협정은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저탄소 전략, 지속가능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의미가 있음, 다양한 이동수단의 고안, 에너지 효율이 충분한 빌딩 등을 반영. 이런 모든 것들은 지역 단위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딜이 지역 단위에서 적용하길 원한다면 이 협약을 변경해서 지역 단위에서 바텀 업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5) 도시와 농촌작업반 논의 공유

- 5/9일에 진행된 도시 정책 및 농촌 정책에 관한 합동 워크샵의 내용을 공유하고 농촌 정책에 대한 OECD의 원칙 및 도시 정책에 대한 원칙을 논의
- PWB에 포함하는 프로젝트이고, 이들의 초점은 장소기반 접근과 상향식 프로세스, 다층적 정부와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 3. 제42차 지역지표작업반 회의 결과

#### □ 회의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 평가: 최근 국제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발간물 「한눈에 보는 2022 지역과 도시」 설명 및 토론
- 외국인 직접투자 및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평가
- 지역과 기후변화

#### □ 회의 결과

##### 1)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 평가: 최근 국제환경의 불안정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야기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필품, 비료 등의 가격은 이미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밀과 옥수수 가격 또한 2021년 각각 41%, 34% 상승하였음.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를 포함한 작물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생산 및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음.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에너지와 비료공급은 제재 이후 OECD 시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OECD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거나, 이들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러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기업들이 대량으로 수출해오던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 물류를 위한 항구나 물류 중심 지역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체 수출시장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업들은 신규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상당한 비용지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일부 유럽국가에 천연가스와 석유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임. 천연가스는 전기 생산과 제조에 있어 널리 사용됨.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공급업체를 찾고, 에너지원을 전환하며 생산 공정을 변화시키는 조합이 필요함.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천연가스가 발전용으로 사용되거나 에너지 집약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가장 큰 난제에 직면할 수 있음. 그러나 석유와 가스 시장은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일부 국가들이 장기계약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를 공급받지 않는 지역, 부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천연가스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부문이 있는 지역은 천연가스 시세의 상승에 따라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석유화학, 금속 및 비금속 광물 분야의 산업을 유지하는 지역은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가스집약산업이 있는 지역은 여러 유럽 국가에 퍼져있으며, 이 중 가장 취약한 지역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북부,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다양한 금속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금속 수입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OECD 회원국 및 지역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연료 수입 의존도로 인한 혼란은 제조업의 넷제로(net-zero)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화석 연료는 녹색 에너지원으로 대체될 수 있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석탄과 같은 대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 (가) 비즈니스 데이터 랩(Business Data Lab)을 통해 클라우드소싱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분석 도구를 개발과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 도입 소개

## 2) 발간물 「한눈에 보는 2022 지역과 도시」 설명 및 토론

- 이 보고서는 지역 격차 및 지역 회복에 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발간되었으며, 인구, 환경, 경제, 포용성 부문과 관련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었음
- '19~'20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평균 약 5% 감소하였으며, 상위 20% 지역에서는 약 2%, 최하위 지역에서는 약 9%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국가 내 지역 경제 격차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안정적이거나 격차가 약간 줄어들었음. 2021년 말 기준, 지역의 1/3은 팬데믹 이전 고용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 도시와 수도는 원격근무의 채택률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 기준 도시 근로

자의 약 20%가 재택근무를 택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심지역의 주택가격은 교외 지역보다 상승률이 더뎠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교외 지역보다 평균 45%, 수도권 인근 지역보다 평균 3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과 최빈개발지역은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은 지난 10년간 빈곤율을 낮추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청년층은 대도시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민자들 또한 주로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향을 보임. OECD 회원국의 이민자 취업률은 평균 약 4.3% 증가했지만, 여전히 현지인들의 취업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특히, 여성 고용률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고 있음. 한편, OECD 회원국의 수도는 고학력 이민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90년 이후 생산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량이 감소된 지역은 40%에 불과함. OECD 회원국의 1/3은 전력을 저탄소 공급원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지만, 나머지 50여 개 지역은 여전히 전력생산에 대한 석탄 의존성이 매우 높음.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의 건물 탄소배출량은 평균 약 12% 감소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가정의 난방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지역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엄청난 산업 전환을 겪을 것임. 한편, OECD 회원국의 수도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률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대도시는 폭넓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반면, 도로 탄소배출량은 동유럽,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독일의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지역 주택 지수(regional price index)의 결여로 인해 정확한 지역 주택의 가격 지수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연방 도시건축공간연구소(BBSR)은 지역 주택 지수를 개발하였음
- (나) 지역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체를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임. 특히 국가 및 지역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반드시 기준과 절차 등이 동일해야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다) 다 정부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 보고서에서 다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때 서울과 서울 외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보고서

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소득 수준 및 성장률 등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의 데이터가 부정확해질 수 있음

- (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라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 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마) 주택의 부담가능성과 임금 등과 관련된 지수는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국가 수준의 데이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 혹은 도시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가격과 경제적 격차를 측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짐
- (바) 바에서 청년층의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OECD 회원국들과 동일한 현상임. 하지만 청년층 가족들의 교외지역으로 이주 또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됨
- (사) 인구의 유입과 유출은 생애주기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청년층의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및 은퇴인구의 교외 이주 등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맞음

### 3) 외국인 직접투자 및 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평가

- 세계 경제 내에서 지역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해 설명. 특히 FDI, GVCs의 혜택과 광범위한 지역의 “국제화” 개념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작업 설명.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국가의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장소 의존도를 이해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함.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노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짐
  - 첫째,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지표 개선
  - 둘째, OECD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역을 통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지역통합을 위한 지표 개발

### 4) 지역과 기후변화

- (지역 기후 지표)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사람과 자산의 노출을 평가하여 국가의 기후 관련 위험도 평가 지원을 위해 지표 개발 중. 이를 위해 폭염, 폭

우, 가뭄, 산불, 강풍, 하천 범람, 해안 침수 등 총 7가지의 지표를 제안하였음. 이를 통해 비교가능한 국가 및 국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후 관련 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 (ECRRA) 유럽 기후 위험 지역 평가 관련 연구로서 기후 변화의 사회, 경제, 환경적 영향을 지역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연구에서는 노동, 운송, 공기 질, 관광에 대한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였고, EU 지역의 기후 회복력에 대한 투자 및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솔루션을 보완하였음.
- (EDGAR)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향상된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로서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가 더욱 빨라졌으며, 산업, 건물, 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측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함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 전환)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활동 때문임. 그리고 이러한 제조 활동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일부 에너지 및 원자재는 탄소배출이 없는 재원으로 교체해야 하며, 관련 인프라 또한 전환이 요구됨
- (1)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력임.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와 규제가 필요함. 미국은 현재와 미래 홍수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음

(참고: <https://www.fema.gov/flood-maps>)

- (2)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관련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또한 “무더위”에 대한 개념은 국가·지역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 (3) 정부의 통계와 프레임워크는 기후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지표, 센다이 지표, 기후변화 관련 지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표들을 정부의 지역 통계 데이터와 결합하여 공표중임
-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활동 동향 공유 및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 소개. 지난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 중심의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탄소배출 지도 추진 등 동향 공유. 우리나라의 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및 생활서비스 관련 정책동향 공유

## 4. 제31차 도시정책작업반 회의 결과

### □ 회의 안건 및 주요 논의 사항

- 지난해 제30차 도시작업반 회의 이후 성과 발표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시경제와 에너지 비용에 미친 영향과 도시의 대응
- 지속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도시 정책에 대한 OECD의 도구 소개 및 논의
-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 그 외 관련 프로젝트 공유

### □ 회의 결과

#### 1)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시와 도시 정책에 미친 영향

-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 1가 도시 경제와 지역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극복하기 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인구의 재조정과 피난처의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고용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 특히, 치솟는 에너지 비용은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따라서 도시는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유통망의 변경으로 인해 도시는 단기적으로 수입 자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유통망은 원자재의 생산과 소비 패턴에 대해 제고가 필요
-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와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대응 필요
-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비용에 미친 영향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세계 도시와 도시 네트워크가 대응한 방안 소개
  - ⇒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한 도시의 재건 필요
  - ⇒ OECD 가입국 도시는 피난처 제공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필요

- (A) 일찍이 사회적 위기를 경험한 A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역할을 통해 현재의 글로벌 쇼크와 향후 발생할 쇼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에 도움을 지원하는 중.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도시정책 아젠다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별도로 양적 연구를 진행 중.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노력
- (B)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류제출 등 이민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면제하고 있고, 카라반, 트레일러와 같은 대체 주거시설을 주거 시설로 승인하는 등 부족한 주거수요를 단기적으로 대응 중
- (C)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건강보험 등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면제하고 있으며, 교육 또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존재
- (D) 기존 커뮤니티가 얼마나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여 현재 400,000여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그 수는 계속 증가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거 문제로 D 내 주요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도시 거주 요구는 증가하여 C와 같은 어려움이 존재. 특히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비 증가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어려움 또한 존재. 전쟁 이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등을 고려해야하고 일부 지역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전후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
- (E) E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개입을 생각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가격 조정을 위해 천연가스, 오일 등을 공급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조언 등도 진행
- (F) F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여 난민의 유입 및 정착을 도움
- (G) G는 직접적으로 난민이 유입되는 국가로 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허용용량을 초과하는 서비스 제공 요청이 증가 중. 난민 중 남성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여성과 아동은 계속 증가하는 중

⇒ (주거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기존 도시의 허용용량을 초과하는 난민 유입으로 주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어떻게 지불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가 등에 대한 어려움 존재

## 2) 제11차 세계 도시 포럼 대응: 도시의 내일

- (OECD 실행 도구) OECD의 '도시 정책에 대한 OECD의 원칙'과 '지속 가능한 개발 체크리스트' 각 도구를 소개하고 현재 버전의 도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논의
- 도시 정책에 대한 OECD의 원칙에 대해 자기평가모델과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 자기평가는 평가목표 설정, 진단, 정책 개선점 도출 등의 과정을 제시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도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0가지 실행방안을 제안
- (1) 실행도구의 지역화를 통해 각 지역에 적합한 실행도구의 도출이 필요, 1의 경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독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

## 3)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 코로나19가 도시의 성장에 미친 영향과 재택근무의 시행, 이로 인한 주거와 회사의 위치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도시가 더 매력적인 장소를 만들기 위한 필요점 논의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주거와 회사를 선택하는 위치 기준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새로운 도시 시스템에 영향
- 재택근무의 확산은 도시로 유입을 줄이고 유출을 증가시켜,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도시는 교외화가 증가하고 고령층은 도시에서 유출하고 젊은 층은 도심으로 유입하는 현상이 증가했으며 중개 도시(Intermediary City)가 등장하고, 제2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 (7) 7 내 중개 도시의 월세가 급격하게 오르고 중개 도시로 유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어떤 도시는 혜택을 독점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 내 주거 시장은 임대와 매매 간의 다른 사이

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

- (ㄴ) ㄱ처럼 중개 도시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대도시의 성장은 일시정지된 상황이며 ㄴ에서 재택근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확장 및 확대
- (ㄷ) 원격근무가 주거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으나 도시에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며 중소도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
- (ㄹ) 우선 중개 도시에 대한 정의와 맵핑을 통해 모두가 같은 개념을 공유할 필요를 강조하고, 우리는 도시와 마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필요성을 주장
- (ㅁ) ㅁ 내에서 여전히 사람들은 대면 근무를 존중하는 성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주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제 통근은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며 기능적으로 도심으로 받아들여진 곳들에 대해 사람들이 매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용의 방식이 중요해짐 고용주가 원격근무를 받아들이는게 필요.
- (ㅂ) ㅂ은 디지털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함.

#### **4)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의 회복탄력성 회복**

- 자연재해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공급망과 정책 우선순위가 이전과 다르게 진행되며 국가와 도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또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
- 팬데믹 이후 기변화에 대응,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방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물의 전략, 기후변화 목표에 대한 IPAC의 전략 파악 등이 필요
-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네 가지 주요 요소로 도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 시민과 장소에 미치는 영향 파악, 도시의 다른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및 혜택을 추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꼽음
- (1) 지역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게 필요.
- (2) 2는 복잡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 전략을 생각하

고 있는데, 먼저 플랫폼을 오픈해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기후 위기를 파악,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기획,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몇 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기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역에 특화된 가이드를 제시. 유출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목의 캐노피가 얼마나 도시를 덮고 있는가를 파악